

## 내 열차 위치 확인부터 공항버스·렌터카 예약까지 한 번에

- 통합여행 플랫폼 도입 6개월 만에 누적 이용건수 578만건
- 역내 식음료 예약 등 새로운 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
- 외국인을 위한 항공-철도 연계승차권 서비스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철도공사(사장 한문희, 이하 코레일)는 ‘24년 6월 통합여행플랫폼 사업인 ‘코레일 마스’(MaaS, Mobility as a Service)를 도입한 결과,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가 ‘24년말 기준 578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.
  - 특히, 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열차위치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이래 약 530만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,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길찾기 서비스도 약 25만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‘코레일 마스’는 승차권 예약 앱인 코레일톡에서 ①길안내, ②열차위치, ③주차정산, ④공항버스 예매, ⑤렌터카 예약, ⑥집배송, ⑦레저 이용권, ⑧관광택시와 같이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고객의 일정 등에 맞춰 편안한 기차여행을 제공하는 코레일의 특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.
  - 특히, 렌터카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약 20배 증가(2백건→40백건) 했고, 코레일 톡 앱에서 미리 주차비를 결제할 수 있는 주차정산은 약 6배(298백건→1,720백건) 증가했다.

< ‘코레일 마스’ 주요 서비스별 이용현황 > (단위 : 백건)

서비스	열차위치	길찾기	주차정산	공항버스
이용건수	52,799	2,525	1,720	766
서비스	렌터카	집배송	레저이용권	관광택시
이용건수	40	11	10	1

※ 코레일톡 MaaS 서비스 화면

<p>승차권 예매</p> <p>출발: 동대구 → 도착: 대전</p> <p>가는날: 2025년 2월 19일 (수) 11:17</p> <p>인원선택: 어른 1명</p> <p>이런 서비스는 어떠세요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길안내</li> <li>열차위치</li> <li>주차</li> <li>공항버스</li> <li>렌터카</li> <li>집배송</li> <li>레저이용권</li> <li>관광택시</li> </ul>	<p>길안내</p> <p>1시간 17분</p> <p>오후 0:36 도착   23,700원   가차</p> <p>한국철도공사</p> <p>도보 391m</p> <p>KTX</p> <p>대전역 승차</p> <p>서울역 하차</p>	<p>열차위치</p> <p>KTX-산천 242</p> <p>KTX-세마울 1007</p> <p>KTX 103</p> <p>KTX-산천 31</p> <p>KTX-산천 241</p> <p>(2025.02.17. 14:11:03) 기준</p>	<p>주차   실시간 주차정보</p> <p>KTX빌딩주차장</p> <p>실시간: 주차 0대 가능</p> <p>주차연수: 114</p> <p>예상혼잡도</p> <p>추가정보</p> <p>주차요금 정산</p>										
<p>MaaS 예약화면</p>	<p>길안내</p>	<p>실시간 열차위치</p>	<p>주차정산</p>										
<p>KTX 공항버스 예매</p> <p>출발: 광명 → 도착: 인천공항T1</p> <p>출발일: 2025년 2월 17일 (월) 14:11</p> <p>승객 인원 및 좌석수: 어른 1명</p> <p>예약하기</p>	<p>롯데렌터카 예약   롯데렌터카</p> <p>서울역</p> <p>02/27 (목) 11:10 - 02/28 (금) 11:10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체</th> <th>경차</th> <th>소형</th> <th>중형</th> <th>준대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형</td> <td>승합</td> <td>SUV&amp;RV</td> <td>전기차</td> <td>수입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캐스퍼 (G) (22~24년식) 가솔린   4인승 52,000원 (60% 할인) 1390,000원 CDW(면책) + 10,000 -</p> <p>K3 (G) (22~24년식) 가솔린   5인승 52,400원 (60% 할인) 1394,000원 CDW(면책) + 10,000 -</p> <p>아반떼 (G) (21~23년식) 가솔린   5인승 52,400원 (60% 할인) 1394,000원 CDW(면책) + 10,000 -</p>	전체	경차	소형	중형	준대형	대형	승합	SUV&RV	전기차	수입차	<p>집배송서비스</p> <p>짐 없는 여행의 시작, 짐캐리 여행 짐당일 운송 서비스</p> <p>수하물 선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S 사이즈: 가솔/캐리어 소형배낭 등 12,000 ~</li> <li>M 사이즈: 화물용캐리어, 물상가방 등 16,000 ~</li> <li>L 사이즈: 대형 캐리어, 골프백, 대형배낭 등 20,000 ~</li> </ul> <p>꼭 확인해주세요!</p>	<p>아날자   제휴채널 초특가도 아날자</p> <p>여행상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남산] N서울타워 전망대+한국 레스토랑 PKG 서울 5% 57,000 원</li> <li>키즈체험 팩스나인스 일산점 경기 5% 11,900 원</li> <li>스키/워터파크 파크하비오 워터링덤 워터파크 ~25,03.03 서울 53% 25,900 원</li> <li>여행(교통) [남산] N서울타워 전망대 이용권 서울 10% 14,400 원</li> </ul> <p>이 지도로 찾기 크루즈(B2B)</p>
전체	경차	소형	중형	준대형									
대형	승합	SUV&RV	전기차	수입차									
<p>공항버스 예매</p>	<p>렌터카 예약</p>	<p>집배송 예약</p>	<p>레저이용권 예약</p>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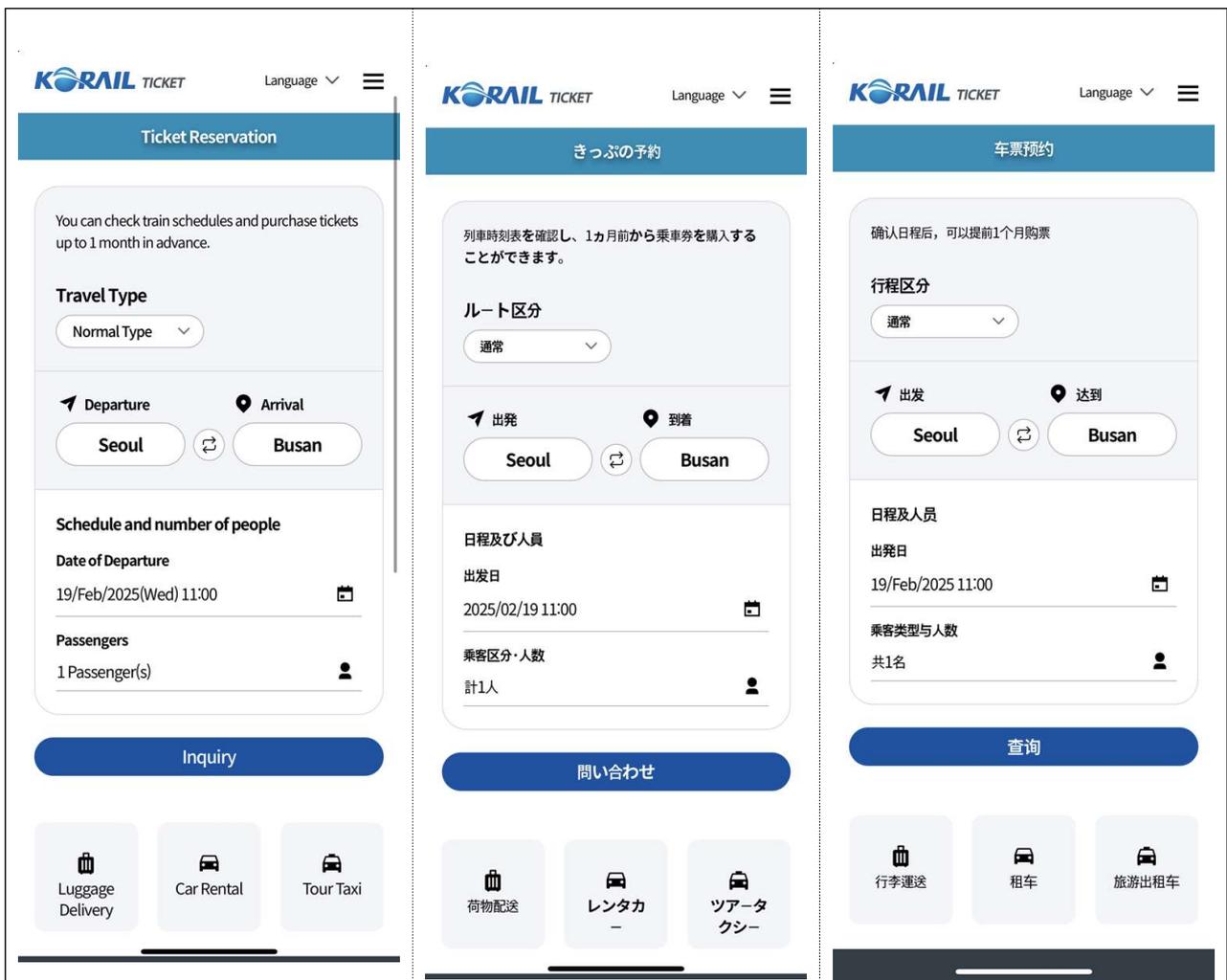
□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세계 각국의 항공사와 연계한 ‘항공+철도(Air&Rail) 연계승차권’ 서비스도 제휴항공사가 26개\*로 대폭 늘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‘24년 한해 1천 5백명이 이용\*\*하여 전년대비 79% 증가(883명→1,580명)하였다.

\* (26개 항공사) 싱가포르, 핀에어, 가루다, 카타르, 몽골, 베트남, 샤먼, 에티오피아, 아시아나, 에어멕시코, 중국 남방항공, 하이난항공, 케세이퍼시픽, 에티하드, 오스트레일리아항공, 로얄브루나이, SN브뤼셀, 스위스국제항공, 루프트한자, 대한항공, 에미레이트, 말레이시아항공, 아이슬란드항공, 에어캐나다, 사우디항공, 터키항공

\*\* (이용인원) '22년 8개사 70명 → '23년 13개사 883명 → '24년 26개사 1,580명

○ 한편, 코레일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'24년 12월부터 렌터카, 짐배송, 관광택시의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온라인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.

※ 외국어 서비스(영어, 일본어, 중국어)



□ 코레일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개발하고 있으며, 3월부터는 열차 탑승 또는 도착시간에 맞춰 코레일톡으로 식음료 제품을 미리 예약하여 역사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식음료 예약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적극적인 협업과 다양한 교통서비스의 연계 제공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여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케이-마스(K-MaaS)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코레일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“지난해는 ‘코레일 마스’의 도입으로 철도 여행의 새로운 장을 연 한 해였다”며, “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철도승차권과 ‘코레일 마스’ 상품을 한 번에 예약·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유찬석 (044-201-4632)
공동	한국철도공사 여행플랫폼처	책임자	처 장	이응대 (042-615-4315)
		담당자	부 장	신승렬 (042-615-4316)
		담당자	부 장	송문관 (042-615-5811)

